

# 農村中心都市 就業人口의 居住類型과 空間活動\*

## —密陽邑의 事例研究—

金 太 煥\*\*

《차 례》	
1. 序 論	(2) 居住類型集團의 性格
(1) 問題提起 및 研究目的	1) 人口學의 特性
(2) 資料	2) 社會·經濟的 特性
(3) 研究地域	4. 居住類型集團의 空間活動
2. 理論的 基礎	(1) 類型集團別 活動空間
(1) 農村中心都市의 性格	(2) 給養活動의 中心地指向行動
(2) 農村中心都市 就業人口의 空間行態에 관한 論議	1) 給養活動의 性格
3. 聚落階層에 따른 居住類型과 類型集團의 性格	2) 類型集團別 給養活動
(1) 居住類型 區分	5. 農村中心都市에 대한 空間認識
	6. 綜合討論
	7. 要約 및 結論

### 1. 序 論

#### (1) 問題提起 및 研究目的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사회변동은 농촌지역에 많은 문제를 안겨주었다. 도시와 농촌간의 不均衡發展에 따른 도농간 생활의 격차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초래하였고 이의 결과로 背後農村地域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지역의 中心地들도 機能的 衰退現象을<sup>1)</sup> 거듭하고 있으며 점차 大都市로의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空間構造의 재편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聚

落階層體系에 따른 격차에 대응하여 극단적 행동양식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즉 농촌지역이 ‘人間定住의 空間’<sup>2)</sup>으로 유지되지 못함에 따라 젊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위주로 選擇的 移出<sup>3)</sup>이 일어나며, 農村中心都市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중심도시의 서비스 시설쇠퇴와 생활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空間行動樣式<sup>4)</sup>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상황에 직면하여 최근 政策의 측면에서는 地方定住生活圈計劃이 추진되고 있으며 定住圈 概念에 의한 농촌지역의 空間構造와 農村開發을 모색하는 연구<sup>5)</sup>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郡單位 生活圈에 대한 분

\* 本 論文은 筆者의 碩士學位 論文임. 指導教授이신 柳佑益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大學院 地理學科 碩士課程卒業.

- 1) 金仁, 1987, 農村地域 面級都市 機能活性化를 위한 研究, 韓國學術振興財團 研究報告書, p.8.
- 2) 崔洋夫, 1988, “農村의 定住性 회복을 위한 定住環境開發의 方向과 課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6 차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위크산, 農村生活環境改善을 위한 政策課題 主題論文, pp.2-22.
- 3) 柳佑益, 1981, “農村人口의 都市指向 移動이 農村地域에 미치는 影響”, 地理學論叢, 8권, pp.33-43.
- 4) 柳佑益, 1988, “農漁村地域 下位中心地體系의 改善方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p.104.
- 5) 崔洙明, 1985, “韓國農村的 定住圈 開發戰略에 관한 研究 一干拓地를 中心으로”, 서울大 大學院, 農工學科 博士學位論文.

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sup>6)</sup> 生活圈內 中心地階層體系에 관한 연구<sup>7)</sup> 등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농촌주민의 생활의 중심지로서 또 정주생활권개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農村中心都市自體에 대한 理解가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지역에 위치한 小都市(邑)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이미 많이 이루어졌으며<sup>8)</sup>, 이것이 1980년대 이후에는 '農村中心都市'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논의되었다. 그런데, 농촌중심도시가 농촌중심도시의 주민 및 背後地 주민에게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는 농촌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조사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또한 農村中心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中心地의 機能的 측면에 치중하여<sup>9)</sup> 농촌중심지의 衰退 및 上位中心地와의 관계에 대해 일면적 설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農村生活空間構造的 파악과 그 變化方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生活的 機會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취락체계에 따른 주민의 行態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以上과 같은 問題認識下에 本稿에서는 農村定住生活圈의 中心都市인 農村中心都市의 사례연구를 통해, 농촌중심도시에 就業하고 있는 人口를 대상으로 이들의 취락체계에 따른 居住類型을 區分하고 類型集團의 特性 및 空間活動의 파악을 통하여 농촌중심도시의 位相을 이해하고자 한다.

## (2) 資料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우편을 이용한 設問調査와 직접 방문하여 面談調査에 의한 것을 기초로 하였다.<sup>10)</sup> 설문대상은 전체 취업인구중에서, 직업대분류표<sup>11)</sup>의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사무 및 관리직 종사자, 판매종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연구대상을 2·3차산업인구로 한정하는 이유는 농촌중심도시에서 都市의 雇傭機會를 제공받는 사람들<sup>12)</sup>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공간행태분석을 통해 농촌중심도시의 位相을 이해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機關과 業體<sup>23)</sup>의 총고용인구 對比 설문조사율은 24.9%이다.<sup>14)</sup>

## (3) 研究地域

연구지역은 慶尙南道 密陽郡 密陽邑이다. 밀양군은 전통적으로 동일한 생활권 지역으로 정주생활권유형구분에서 일반농촌형으로 분류된다. 또 경상남도 정주권 구분<sup>15)</sup>에서는 인근 金海, 梁山, 蔚州郡과 함께 釜山背後都市圈에 속한다.

密陽邑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도시로 1918년 邑으로 승격하여 일찍부터 郡의 경제, 교육, 행정중심지로 발달했다. 위치는 釜山과 大邱의 중간적 지점인데 밀양읍을 통과하는 京釜線철도가 두 지역을 연결하고 있다.<sup>16)</sup> 즉 밀양읍은 두

6) 李勇雨, 1987, “農村地域開發計劃의 樹立을 爲한 地域分析 一南原地域을 사례로一”, 서울大 大學院 地理學科 석사학위논문.

7) 崔洋夫外, 1984, 農村地域의 定住體系와 中心地開發, 農村地域綜合開發에 관한 研究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柳佑益, 1988, 앞의 논문.

8) 1970년대의 소도읍에 관한 연구의 소개는 다음 논문의 pp.8-9를 참조.

崔洋夫, 1982, “農村中心都市의 意義와 役割”, 도시문제, 17권 2호.

9) 李在德, 1985, “淸原郡 農村中心地에 관한 연구 一人口와 機能分布를 中心으로一”, 淸州師大論文集, 15집, pp.187-211.

10) 우편이용 설문조사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면담조사는 아래의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면담조사는 1988년 8월 17일부터 24일까지와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의 양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11)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74, 개정한국표준직업분류.

12) 연구지역에서 非農家戶數는 전체의 86%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비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密陽邑, 1988, 현황보고.

13) 조사대상 기관 및 업체는 다음과 같다. 군청, 교육청, 지방법원지원, 지방검찰청, 지청, 우체국, 보건소, 밀양역, 한전, 전화국, 농협, 은행, 전문대, 고등학교, 중학교, 병원, 시장 번영회 등. 이중 시장 번영회는 가입상인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14) 조사대상 총고용인수는 926명이며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 수는 231개이다.

15) 慶尙南道, 1983, 綜合開發計劃 1982~1991.

16) 부산과 대구는 모두 통일호 기준으로 밀양에서 50분 거리에 있다.

대도시 지역의 중간에 위치하여 두 지역으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와의 관계속에서 농촌중심도시에 취업하고 있는 人口의 다양한 空間行態를 파악하는데 밀양읍은 적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대구, 부산, 마산 등의 인근도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편한 편이다. 특히 부산과의 도로교통의 불편은 이 지역에 공업발달을 저해하는 요소의 하나이다.<sup>17)</sup>

## 2. 理論的 基礎

### (1) 農村中心都市의 性格

최근 농촌지역에 위치한 小都市의 性格을 都市와 農村의 連繫開發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sup>18)</sup>들이 진행되어 왔다.

즉 農村中心都市를 주변농촌지역과 결합된 農村定住生活圈의 中心都市로서 파악하고 이를 농촌지역의 개발 및 生活의 核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다.<sup>19)</sup> 農村中心都市의 개념규정은 대체로 人口 2만~10만 정도의 규모로 배후농촌지역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배후농촌지역의 中心地로서 기능하는 곳이라 정의된다.<sup>20)</sup> 따라서 이전의 地方의 中小都市나 농촌지역에 위치한 小都市의 개념은 이것이 단순히 人口규모에 의거한 都市體系上的 規定인데 반하여 農村中心都市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그 도시가 수행하는 機能의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 농촌중심도시는 이것이 취락체제에서 中間的 位置를 정한다는 사실<sup>21)</sup>에

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농촌중심도시가 농촌개발 및 균등한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役割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농촌중심도시는 停滯내지 衰退의 길을 걷고 있다.<sup>22)</sup> 이러한 現象은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배후지 人口의 과도한 유출에 따라 농촌중심도시가 기능할 수 있는 限界規模人口에 못 미침으로 해서 일어나는 衰退 現象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農村中心都市가 실질적으로 농촌주민의 基本需要와 欲求를 충족시켜주지 못함에 따라 농촌주민은 더 높은 上位階層都市로의 지향 및 人口移出을 경험한다는 것이다.<sup>23)</sup> 결국 현 농촌지역의 낙후성과 농촌지역 중심도시들의 성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2) 農村中心都市 就業人口의 空間行態에 관한 論議

일반적으로 住居立地는 직장입지와 그의 다른 활동입지—쇼핑지역, 학교, 여가공간, 사회단체 등—와의 접근성에 기초한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Wolpert<sup>24)</sup>는 이러한 空間移動行態를 場所에 대한 效用性(place utility)의 평가 결과라고 하였다. 또한 住居立地決定은 결정주체가 자기 다른 人口學的, 社會經濟的 特性을 보유하므로 환경에 대해 자기 다른 지각과 반응을 보인다.<sup>25)</sup>

Rosemann<sup>26)</sup>은 移住에 의한 住居立地變動을 기타 活動立地와의 관계속에서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기존의 住居立地에서 맺고

17) 密陽文化院, 1987, 密陽誌, p.161.

18) 黃明燦, 1981, “地域開發과 農村中心都市의 役割과 開發方向”, 都市問題, 16권 6호,

19) 柳佑益, 1984, “國土開發에서 農村開發의 意義”, 地理學 30호, pp.28-40.

20) 崔洋夫, 李容晚, 1984, 農村地域綜合開發의 意義와 課題, 農村地域綜合開發 심포지움 綜合報告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pp.89-99.

21) 柳佑益, 1985, “農村地域의 空間的 特性과 開發戰略”, 農村地域綜合開發研究의 課題, 韓國農村經濟研究院, p.80.

22) 농촌중심도시로 유추되는 군청소재지(120개)의 市와 邑은 1980~1986 사이에 71%가 경제 내지 쇠퇴현상을 겪고 있다. 柳佑益, 1988, 앞의 논문 pp.8-9.

23) 李正煥, 1985, “農村地域의 構造와 特性”, 農村地域綜合開發理論 I (理論的 基礎), 韓國農村經濟研究院, p.88.

24) Wolpert, J., 1975, “Behavior aspects of the decision to migrate”, *Readings in Social Geography*, ed., E. Johns, pp.191-199.

25) 蔡雄, 1986, “地方都市住民의 住居移動行態에 관한 研究”,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26) Rosemann, C.C., 1971, “Migration as a spatial and temporal Process,” *Annals of A.A.G.*, Vol. 6, pp.589-598.

있던 활동입지와와의 관계를 새로운 주거입지에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유형과 이러한 활동입지중 부분적으로만 대체하고 移住이후에도 기존의 활동입지와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유형으로 나누었다. 한편 가구의 居住立地 決定要因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의 한 방법으로 거주입지의 선호유형을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Bell<sup>27)</sup>은 가구의 취향을 중심으로 4가지 先好類型—家族指向型, 職場指向型, 消費指向型, 共同體指向型—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유형들은 객관적 조건인 농촌중심도시의 場所效用性에 대한 각 가구의 특성에 따른 주관적 결정과정을 반영한 居住類型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된다.

또한 상이한 住居立地決定을 제한하는 변수로 通勤의 측면에서 분석하려는 시도<sup>28)</sup>들이 있어 왔다. 이와같은 관점에서의 住居立地決定은 이제까지의 生涯週期측면에서의 변수이외에 직장까지의 通勤手段, 通勤時間, 자동차의 所有 등의 변수가 주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로 상이한 住居空間과 活動空間을 가지는 각 가구는 동일한 社會的 空間<sup>29)</sup>을 공유하는 社會的 集團으로 분류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집단의 空間行動樣式에서의 차이성은 社會經濟的 特性 등 각 가구의 구조적 특성과 상이한 空間認識(장소의 효용성)에 의해 뒷받침되고 또한 이러한 상이한 공간행동양식에 의한 空間構造의 변화는 도시결정상황에 작용하여 空間行動樣式에 영향을 미치며 또 공간인식 또는 지역의식과도 연결되는 feedback 관계에 있다.

### 3. 聚落階層體系에 따른 居住類型 및 類型集團의 性格

#### (1) 類型區分

여기에서는 일반적 거주입지, 직장입지 및 기타활동입지 사이의 관계를 기초로 취락계층체에 따른 거주유형을 구분하는데, 농촌중심도시에 이미 직장입지가 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거주유형이 나타나는가를 고찰하고 이의 유형구분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와같이 농촌중심도시에 직장입지가 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각종 '生活의 機會'의 격차에 대응하여 농촌중심도시에서 대도시로 완전히 이주한 終結的인 행동양식을 보인 가구를 제외하고, 현재 농촌중심도시와 관련을 가지면서 다양한 中間的인 행동양식<sup>30)</sup>을 보이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행태를 통해 농촌중심도시를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의 행동양식은 농촌중심도시의 실태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양식이며 또 이들의 공간적 행태를 통해서 농촌중심도시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의 취락체계는 크게 上位의 도시적 취락체계와 下位의 농촌적 취락체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취락의 계층체에 따라 세 범주로 나누었는데, 전체 취락체계에서 하위의 취락체계와 상위의 그것을 연결하는 위치인 農村中心都市를 하나의 범주로 묶고, 또 상위의 대도시 및 지방중심도시를 포함하여 하나의 周邊大都市범주로 분류하였으며, 밀양읍을 제외한 나머지 밀양군지역을 背後農村地域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취락체계에 따른 거주유형의 구분은 농촌중심도시에 직장을 가진 가구들이 거주지를 취

27) Bell, W., 1958, "Social Choice, life styles and Suburban residence", ed., W. Dobriner, *The Suburban Community*, 金光日, 1988, 서울市 高等學生 子女를 둔 家口의 住居移動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에서 재인용.

28) Yapa, L., Polese, M. and Wolpert, J., 1969, "Interdependence of Commuting and Migration," *Proceedings of the A.A.G.*, Vol. 1, pp.163-168.

Holmes, I.S., 1972, "Linkages Between External Commuting and Out-migration: Evidence from Middle-Eastern Pennsylvania", *Economic Geography*, Vol. 48, pp.406-420.

29) 柳佑益, 1984, 앞의 논문, pp.28-40.

30) 중간적 행동양식은 '취락의 계층체에 따른 居住分裂' 또는 '기본활동의 공간적 분열'과 같은 특이한 행동양식으로 이를 통해 기회의 극대화를 꾀한다고 한다. 柳佑益, 1988, 앞의 논문 pp.104-105.

락체계의 어디에 입지시키는가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보조적으로 가족의 교육활동의 입지를 고려했다. 교육활동을 한 변수로 고려한 이유는, 일정지역이 제공하는 교육기회는 각 가구의 거주입지에 중요하게 작용하며<sup>31)</sup> 또 취락체계에 따른 교육기회수준<sup>32)</sup>의 격차는 이에 반응하는 다양한 거주유형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정된 직장입지외에 거주입지, 교육입지를 고려하여 유형구분을 하던 주거와 교육을 어디에 입지시키는가에 따라 아주 많은 경우가 나타난다. 이를 범주화하기 위해, 우선 취락체계에서 거주지가 어디에 입지하는가에 따라 이들 경우를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각각의 경우를 거주입지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農村中心鄉市(밀양읍)에 거주하는 경우이다. 이는 거주지가 직장이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교육을 고려하면 각 가구가 교육의 기능을 밀양읍에 의존하는 경우와 밀양읍외의 지역에 의존하는 두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는, 가장의 직장이 있는 밀양읍에 가족이 모두 함께 거주하는 경우<sup>33)</sup>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교육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부분적으로 타지역의 교육기회에 의존하지 않으며, 가장의 직장소재지에 모두 거주한다는 점에서 密陽居住 職場指向型으로 분류한다. 후자의 경우는 자녀들이 상위의 대도시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단신으로 대도시에 나가 입지거주를 마련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가족의 대부분이 밀양에 거주하나 교육을 받는 자녀만이 타지역에 나가 따로 살고 있다는 점에서 密陽居住 教育指向型으로 분류한다.

둘째는 周邊大都市범주에 거주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직장을 밀양읍에 가지나 직장이외의 생활의 기회를 더 우선시 하여 주변대도시지역에 거주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취업인의 거주형태에 따라 두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가족들은 대도시에 남겨두고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취업인이 밀양읍으로 단독 이주하여 혼자 기숙하는 경우와 취업인이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사는 고통을 시간·비용경비로 대체하여 주변대도시에서 밀양읍으로 逆通勤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따라서 전자는 가족들의 居住와 취업인의 거주가 분리되므로 居住分離型으로 분류하고, 후자는 大都市居住型으로 분류된다.

셋째는 背後農村地域에 거주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촌중심도시에서 제공하는 도시적 고용기회에 취업한 在村通勤유형이다. 이 유형에서의 교육활동은 초등교육의 경우 주로 배후교육지역에서 하고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농촌중심도시로 통학하거나 인근대도시를 지향한다. 분석의 편의상 배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교육활동을 상위도시에 의존하는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背後農村地域居住型으로 분류한다. 調査된 표본에서 인근 郡에 居住하고 밀양읍의 직장으로 통근하는 경우가 3 case 발견되는데 이들은 모두 밀양읍의 通勤圈內의 面部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외에 자녀들이 가족과 따로 떨어져 농촌중심도시에서 교육을 받고 가장이 인근대도시에서 통근하는 유형이나 자녀들이 배후농촌지역으로 통학하고 농촌중심도시에서 거주하는 유형등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유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교육의

31) 趙舜哲, 1982, “地方工業都市에 있어서 從業員의 家族移動에 관한 研究”,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32) 최근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教育機會水準은 도시와 농촌간에 그 격차가 매우 크고 주변지역으로 갈수록 교육기회는 더욱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며 上級學校에 이룰수록 그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

朴英漢, 1984, “教育機會의 地域差에 관한 研究”, 地理學論叢, 서울大 地理學科, pp.1-17.

33) 이 유형과 비슷한 것으로서 가족들이 대부분 밀양읍에 거주하나 자녀중 일부가 직장을 구해 타지역으로 나가 입지거주를 마련한 유형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조사결과 6 Case가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농촌중심도시에서 취업기회를 제공받는 가구들의 대표적인 거주유형을 파악하고 또 이들 가구의 거주입지와 교육입지를 통해 거주유형을 구분하므로 실제 분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한 가구내에서 자녀들이 교육을 위해 타지역으로 나간 경우와 직장을 구해 타지역으로 나간 경우가 동시에 발생하는 5 Case는 밀양거주 교육지향형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기능자체가 상위중심지에 치우쳐 분포하고 취약계층체제를 따라 뚜렷한 질적 차이를 보임으로써 거주유형에서도 이와같은 결과를 낳는다. 또 부인이 농촌중심도시에 취업을 하고 자녀를 농촌중심도시에 교육시키며 남편이 대도시에서 혼자 기숙하며 취업한 경우나 그와 반대의 부부취업가구 등도 나타나나 소수에 불과하므로 유형구분에서 제외한다.

결국 농촌중심도시에 직장, 거주, 교육활동을 통해본 취약계층체제에 따른 거주유형은 다음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 A 유형 : 밀양거주 직장지향형
- B 유형 : 대도시 거주형
- C 유형 : 배후농촌지역 거주형
- D 유형 : 거주분리형
- E 유형 : 밀양거주 교육지향형.

이상의 유형구분에 따른 조사가구의 유형구성은 표 1과 같다.

## (2) 居住類型集團의 性格

앞에서 조사가구의 거주유형을 구분하였는데, 상이한 거주유형은 각 가구의 생애주기나 사회·경제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이들 거주유형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유형집단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人口學的 特性

인구학적 특성은 거주유형의 분석과 관련이 깊은 연령과 생애주기를 통해 각 집단의 성격을

표 1. 類型別 家口分布 (단위 : %)

	家 口 數
A 類型 : 密陽居住職場指向型	125( 52.4)
B 類型 : 大都市居住型	22( 9.5)
C 類型 : 背後農村地域居住型	15( 6.5)
D 類型 : 居住分離型	29( 12.6)
E 類型 : 密陽居住教育指向型	44( 19.0)
계	231(100.0)

자료 : 설문조사

파악하고자 한다.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의 규모, 가족생애주기 등의 특성에 따라 주택의 수요나 환경선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주지 선택과 거주이동 등은 각 가구가 처해있는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인정<sup>34)</sup>된다. 각 집단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유형집단(密陽居住職場指向型)은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전 연령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다. 그러나 같은 밀양거주집단인 E 집단과 비교하면 3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생애주기면에서 볼때 자녀가 대부분 취학전이거나 국민학교에 다니는 시기이다. 또한 전체 조사가구의 생애주기 분포와 비교해 보면 A 집단은 자녀가 중학교 이후에 큰 폭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이 유형집단의 성격은 아직 교육보다는 직장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단계가 주를 이룸을 알 수 있다. B 유형집단(大都市居住型)은 부산, 대구등 대도시의 직접적 통근권내에 포함되지 않고 통근소

표 2. 유형집단별 생애주기분포

(단위 : 명)

생애주기 \ 집단	A 집 단	B 집 단	C 집 단	D 집 단	E 집 단	계
결 혼 전	10	4	6	12	—	32
~첫아이 출산전	9	1	2	1	—	13
~첫아이 국민학교 입학전	38	6	2	4	—	50
~첫아이 13세	34	4	2	1	1	42
~첫아이 19세	20	4	1	4	4	33
~첫아이 결혼전	8	2	1	2	16	28
~막내아이 결혼전	2	1	1	2	16	23
~막내아이 결혼후	—	—	—	1	—	1
계	121	22	15	27	37	222

34) 蔡雄, 1986, 앞의 논문, pp.10-20.

요시간도 대부분 1시간 이상인 점을 고려할때 이들 유형은 비록 작은 비중을 차지하나 농촌중심도시의 位相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연령층은 30대가 가장 많고 생애주기면에서는 자녀들이 취학전이거나 국민학교 재학이 가장 많다. 이들 유형집단의 人口學的 特性을 社會・經濟的 特性과 관련시켜 볼 때 이 집단은 일찍부터 자녀를 大都市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上流層이라 볼 수 있다. C유형집단(背後農村地域居住型)은 다른 집단에 비해 20대 후반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배후농촌지역에서 農業外就業에 종사하는 인구는 젊은층이 주를 이룸을 알 수 있다. D유형집단은 생애주기면에서 결혼전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자녀들이 中學校 이상에 재학중인 단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居住分離型은 그 이유가 주로 교육이지만 결혼전 단계의 경우 직장으로 인해 거주분리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E유형집단은 그 특징상 모두 40대이후이다. 또 자녀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초·중등교육의 경우에도 다수를 차지하여 일찍부터 대도시로 내보내 교육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社會・經濟的 特性

사회·경제적 특성은 社會階層을 잘 반영하는 職業을 통해 분석하였다.<sup>35)</sup> 따라서 이의 분석을 통해 거주유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A집단은 사무직과 자영업이 약 80% 정도를 차지한다. 고위전문직과 관리직의 비율이 타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같은 밀양거주집단과

비교해 볼 때도 사회경제적 특성상 낮은 계층에 이 많이 속한다. B집단은 D집단과 같이 관리직과 고위전문직만 약 40%정도 나타난다. 즉 주변대도시에서 통근하는 집단이 밀양거주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류계층에 속함을 알 수 있다. D집단은 경제적으로 二重家計의 부담을 가지게 될뿐 아니라 同居集團으로서의 가족의 意義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sup>36)</sup> 이러한 거주유형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 이외의 생활의 기회(특히 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E집단도 마찬가지로 인테한 가족이 離散하여 살고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상류계층의 직업에서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배후농촌에 거주하는 C집단은 대부분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특징을 보인다. 以上의 직업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로 社會・經濟的 地位가 높은 사람들이 농촌중심도시에 취업하더라도 대도시와 관련을 가지는 居住類型을 선택한다.

4. 居住類型集團의 空間活動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상이한 居住類型과 類型集團의 性格을 기초로 하여 각 유형집단의 공간활동의 특성과 그 차이점을 구명하고자 한다.

(1) 類型集團別 活動空間

각 類型集團은 서로 상이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점하고 또 취락계층을 따라 다양한

표 3. 유형집단별 직업분포

(단위 : %)

직업 \ 집단	A 집 단	B 집 단	C 집 단	D 집 단	E 집 단	계
자 영 업	44( 38.9)	.	.	2( 7.1)	13( 29.5)	59
사 무 직	46( 40.7)	7( 31.8)	13( 86.7)	8( 28.6)	9( 20.5)	83
전 문 기 술 직	13( 11.5)	6( 27.3)	2( 13.3)	7( 25.0)	14( 31.8)	42
고 위 관 리 직	4 (3.5)	1( 4.5)	.	4( 14.3)	5( 11.4)	14
고 위 전 문 직	6 (5.3)	8( 36.0)	.	7( 25.0)	3( 6.8)	24
계	113(100.0)	22(100.0)	15(100.0)	28(100.0)	44(100.0)	222

35) 洪斗承, 1983, “職業分析을 통한 階層研究”,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第5卷, 第3號, 서울大 社會科學研究所, p.69.

36) 趙舜哲, 앞의 논문,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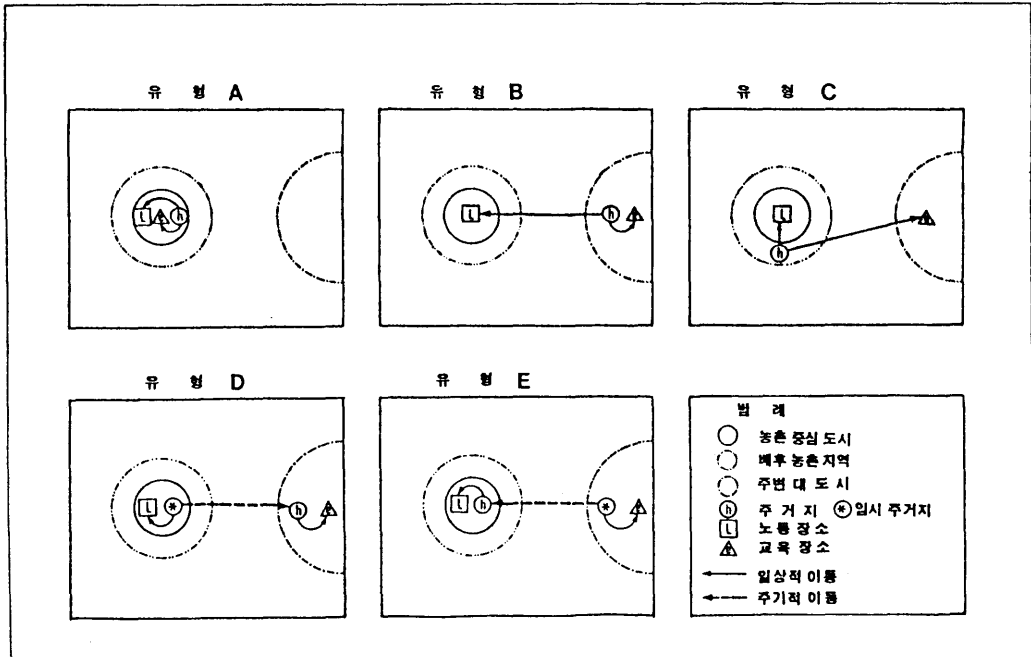


그림 1. 유형별 활동공간

주거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기 고유한 활동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1은 각 유형집단의 일반적 활동공간을 圖形化한 것이다. 각 유형집단의 활동공간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A유형집단

A집단은 밀양읍내에서 주거, 직장, 교육 등의 기본활동을 모두 수행한다. 그래서 이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한 일상의 활동범위는 주로 밀양읍내이다. 이러한 공간활동의 범위는 급양활동의 中心指向行動에도 영향을 미쳐 타집단에 비

해 밀양이용율이 높게 나타난다.

2) B유형집단

B집단은 밀양읍에서 단지 직장(노동)의 기능만을 수행한다. 따라서 활동공간은 거주하고 있는 인근도시가 주가 되고 밀양읍으로는 일상적 통근만 할 뿐이다. 그림 2는 통근자 집단(C집단 포함)의 거주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釜山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大邱, 馬山, 鎭海의 순이다. 통근소요시간은 대부분이 1시간이상이다.

3) C유형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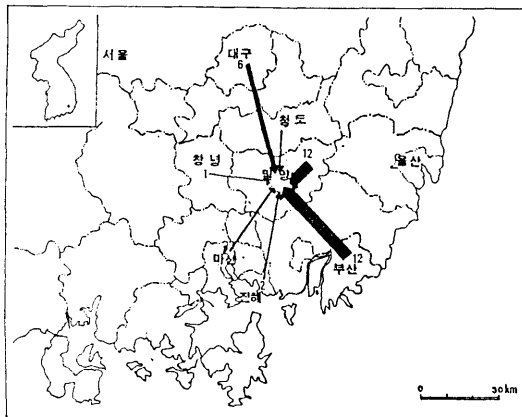


그림 2 통근자 집단의 거주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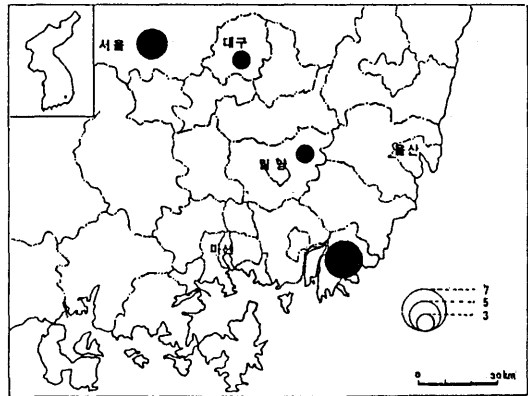


그림 3 거주분리형의 가족소재지



C 집단은 밀양읍에 직장을 가지고 주거는 배후농촌지역에서 하므로 공간활동의 범위가 주로 밀양읍과 배후농촌에 한정된다. 그러나 교육의 경우 대도시지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활동공간은 급양활동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쳐 밀양거주집단에 비해 인근도시 지향이 높은 편이다.

#### 4) D 유형 집단

이 집단은 가구주와 가족의 활동공간이分離되며 가구주가 대도시의 본택으로 週期的 移動을 한다. 거주분리형의 가족소재지(그림 3)는 통근자집단의 거주지 분포와 비교해 볼 때,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 대구의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밀양읍에서의 거주형태는 하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sup>37)</sup> 以前 거주지에서의 주거<sup>38)</sup>형태는 대부분이 自家를 나타내어 밀양읍으로의 직장이동으로 인하여 居住分離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살게된 시기에 있어서는 1년 전부터가 43%로 가장 많이 나타나나 5년 이상도 28%나 차지한다. 이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이 一時的 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고착된 현상임을 말해준다.

#### 5) E 유형 집단

이 유형에서, 가족들의 활동공간은 밀양읍이 주가 되며 자녀들을 매개로 인근도시로 확대된다. 자녀들의 임시주거지(교육지향지) 분포의 특성은(그림 4) 서울이 가장 많고, 부산, 대구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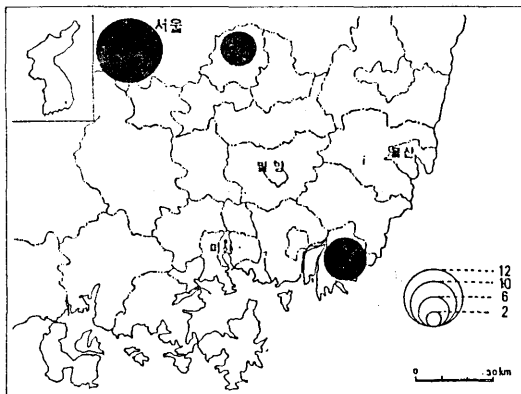


그림 4. E 집단의 자녀들의 임시주거지 분포

37) 集團의 居住形態는 하숙 76%, 자취 7%, 친척택 3.4%, 기타 13.6% 등으로 나타났다.

38) 集團의 前居住地 居住形態는 자가 76%, 하숙 8%, 자취 16% 등으로 나타났다.

## (2) 給養活動의 中心地指向活動

여기에서는 각 類型集團의 空間活動을 給養活動의 中心地指向活動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급양활동은 財貨의 購買活動과 서비스시설의 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本稿에서는 생필품, 의류 및 구두, 가전제품의 구매행위와 음식점, 병원이용을 예로 조사하였다. 中心地는 밀양읍, 인근도시, 배후농촌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 1) 給養活動의 性格

居住類型集團에 따라 中心地指向活動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급양활동의 一般의 性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밀양읍에 살고 있는 가구의 居住年限, 職業, 教育水準, 生涯週期 등의 특성에 따라 파악하였다.

居住年限面에서 파악하면, 밀양읍으로 移住한 가구집단이 인근도시를 지향하는 성향이 아주 강하며 또 이주초기에는 인근도시를 指向하다가 점차 밀양읍으로 대체되어간다. 職業과 教育水準面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결국 생활수준의 욕구가 높고, 거리극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上流階層의 집단이 밀양읍의 생활의 기회(상품의 質)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근도시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人口學의 특성에서의 中心地指向은, 생애주기면에서 子女가 어릴수록, 또 家口主의 연령이 젊을수록 인근도시 지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 2) 類型集團別 給養活動

집단별 급양활동은 생활의 근거지를 인근도시로 하는 B집단은 제외하고 A, C, D, E집단을 급양활동의 품목별로 비교하여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밀양읍이 주민에게 1차적 給養의 기능을 수행하고 두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곳은 인근도시이다.

集團別로 살펴보면, 인근도시를 指向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集團은 居住分離型인 D집단이다. 이들은 가족과 活動空間이 분리되는 관계로 인근도시(가족거주지)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밀양읍으로의 指向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생활근거지를 완전히

인근도시로 하는 B집단과는 달리 직장 이외의 다른기능 또한 밀양읍에 상당히 의존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인근도시의 지향이 높은 집단은 C집단이다. 이들이 密陽居住集團에 비해 인근도시로의 指向性이 강한 이유는 젊은 연령층이 많은 人口學의 特性과 직업 등의 社會經濟的 特性 및 인근도시와의 接近性 등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A集團과 E集團의 순으로 인근도시를 指向한다. A집단이 E집단에 비해 인근도시를 지향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A집단이 E집단에 비해 젊은 연령층의 집단이며 또 E집단이 A집단에 비해 밀양에 계속 거주한 原住民이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空間行動樣式은 밀양읍의 生活의 質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는 결국 定住意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품목별로도 集團間的 특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생필품처럼 가장 저차상품의 경우 A와 E집단은 100% 밀양읍을 이용하고 C집단은 밀양읍과 배후농촌을 D집단은 밀양읍과 인근도시를 지향하여 집단간에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고차 상품 의 경우에서 集團別로 인근도시 이용률에 차이를 뚜렷이 보이는데, 이는 집단간의 社會的 特性과 活動空間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農村中心都市에 대한 空間認識

각 集團의 中心地指向行動에 있어서 相異性을 보이는 裏面에는 主觀的 價値體系의 상이성도 함께 構造化되어 있다.<sup>39)</sup> 이러한 가치체계는 意思決定의 과정에 작용하여 行動樣式이나 生活樣式을 지배한다.<sup>40)</sup> 여기에서는 농촌중심도시의 生活의 機會에 대한 다양한 居住類型集團의 意識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들의 의식과 공간활동 및 거주유형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정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定住意識은 地域社會發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定住意思는 E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이들이 密陽에 계속 거주해온 原住民이 많은 集團이며 또

자녀들을 이미 他地의 上급학교에 취학시킨 단계에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역시 밀양 거주집단인 A집단이다. 그러나 이들중 定住意思가 없는 비율이 40%에 이른다. 이는 이주하고 싶은 이유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이 人口學的 特性上 자녀가 就學하는 단계에 많이 속하기 때문이다. 배후농촌에 居住하고 있는 C집단이 定住意思가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 이는 배후농촌 지역의 生活의 機會에 대한 불만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비슷한 人口學的 特性의 A집단과 비교하여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떠나고 싶은 주된 이유로는 세 집단 모두 '자녀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인근도시에 거주하는 B집단과 居住分離型인 D집단은 密陽邑으로의 移住意思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밀양에 定住할 意思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유형집단이 밀양읍의 발전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밀양읍의 發展展望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社會의 발전, 地方自治制의 실시, 農工團地조성, 交通의 발달 등의 이유로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集團別로 살펴보면, A집단과 E집단이 지역발전 전망에 대해 가장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背後農村地域居住集團인 C집단이 다음을 차지하며 D집단과 B집단이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즉 밀양읍에 임시거주지를 마련한 상태이거나, 단지 就業의 場所로만 사용하는 집단이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가장 낮은 평가를 하게 되고 또 그 결과 이와같은 居住類型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6. 綜合 討論

이상에서 農村中心都市 就業人口의 居住類型과 각 유형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空間活動 및 空間認識을 고찰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空間的 行態가 農村中心都市의 位相과 어떻게 관련되며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논하고자 한다.

生活의 機會에 있어서의 농촌중심도시와 대도

39) 任錫會, 1988, 앞의 논문 p.79.

40) 柳佑益, 1988, 앞의 논문 p.98.

시의 격차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촌중심도시 취업인구에게 다양한 거주유형을 초래하였다 이는 가구전체가 완전히 대도시로 이주하는 극단적 행태를 보이는 가구를 제외하고 생활의 기회에 대하여 集團에 따라 상이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특히 大都市居住型, 居住分離型, 密陽居住教育指向型등은 생활의 기회에 대한 제약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行動樣式이다.

大都市居住型은 비록 직장이 농촌중심 도시로 옮겨지더라도 자녀의 教育을 위해 인근도시에 계속 거주하며 通勤의 형태를 선택한다. 또한 농촌중심도시에 직장을 가지고 살다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인근도시로 이주하여 家長만 逆通勤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결국 이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생활근거를 대도시에 유지하면서 농촌중심도시를 소득창출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居住分離型은 좀더 비타협적으로 機會의 極大化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行動樣式을 보인다. 이는 통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일어나는데, 가족 거주지가 교육의 집중도가 가장 두드러진 서울이 많이 나타남이 특징이다. 대도시에서 居住하다가 직장이동으로 농촌중심도시에서 臨時居住地를 마련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자녀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이주하고 혼자 남는 경우도 있다. 이 유형 또한 생활의 기반을 대도시에 두고 있으나 대도시거주형과는 달리 농촌중심도시에서 어느정도 의존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 유형 역시 소득의 地域外流出을 지속시키는 통로이다.

密陽居住教育指向型은 原住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단이나 자녀중 일부가 上位都市에 임시주거지를 마련하여 가족이 떨어져 살고 있다는 점에서 비타협적이다. 이 유형은 자녀의 사회적 계층상승의 욕구 때문에 초등교육에서부터 인근도시로의 指向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생활의 근거지를 농촌중심도시로 하는 집단의 경우도 젊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또 거주연한이 짧은 사람이 인근 대도시지향의 성향이 강하다. 또 背後農村地域에 거주하는 집단은 오히려 농촌중심도시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인근도시로의 지향율이 더 높아 농촌중심도시가 배후지역의 중심도시로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을 말

해준다.

이상에서 농촌중심도시에서 삶의 질에 대응한 공간적 행동양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앞의 세유형은 매일 수행되는 日常的 存在基本機能이 일정 생활권내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기능간에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이것이 空間적으로 分裂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농촌중심도시를 중심으로한 이와같은 거주유형은 농촌중심도시에서 기본적 요구가 충족되고 대도시와 대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農村中心都市에서 中間的 行動樣式을 보이는 집단의 구조적 특성으로 보아 이러한 현상이 상당한 정도로 選擇性을 띠고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生活의 機會에 대한 제약은 社會的地位의 상승을 위한 機會에 대한 제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人口集團은 농촌중심도시에서 고용기회를 제공받는 사람들 중 주로 上流階層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中心地指向行動에서 人口學的, 社會經濟的 특성에서의 선택성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공간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현재의 중간적 공간행동양식은 地域意識의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농촌중심도시에서의 定住意識과 地域發展展望에 대해 소극적 평가를 내리게 한다. 이는 이들이 농촌중심도시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결국 이 지역의 발전에 크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농촌중심도시에서의 이와같은 공간행태는 階層構造가 갖는 一般的 屬性으로 上向偏重의 중심지 지향의 결과로도 볼 수 있으나 또 한편 현 농촌중심도시의 생활의 기회에 대한 대도시와의 상대적 격차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農村中心都市에서 定住의 不安定으로 연결되고 농촌중심도시가 定住生活圈 中心都市로 기능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된다.

以上の 논의속에, 農村定住生活圈의 核으로서 농촌중심도시의 기능이 활성화 되고 주민들의 定住空間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基本需要가

자체내에서 충족될 수 있고 또 質的 측면에서 上位中心地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부터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人口移動과 均衡한 地域發展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며 특히 住居環境整備와 教育機會 확충 및 質의 改善은 꼭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된다.

## 7. 要約 및 結論

본고에서는 기능적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農村中心都市의 位相을 이해하기 위해 농촌중심도시의 就業人口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농촌중심도시의 生活의 機會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空間行態는 농촌중심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중심도시는 上下位 聚落體系를 연결하는 중간적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가구의 構造的 特性和 농촌중심도시에 대한 場所效用性 평가의 相異性으로 인하여 다양한 居住類型이 나타났다. 취락계층체계에 따른 농촌중심도시 취업인구의 거주유형은, 農村中心都市 居住 職場指向型, 大都市居住型, 背後農村地域 居住型, 居住分離型, 農村中心都市居住 教育指向型 등으로 분류된다.

둘째, 각 유형집단은 상이한 人口學的 社會經

濟的 特性을 지닌다. 생활의 기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 中間的 行動樣式集團이 상대적으로 社會的 地位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

셋째, 각 유형집단은 거주유형에 대한 활동공간의 차이로 상이한 中心地指向을 하고 있다.

넷째, 이와같은 居住類型과 空間活動은 社會的 地位面에서 상당히 選擇性을 띠고 나타난다. 특히 大都市居住型과 居住分離型이 농촌중심도시에서의 定住意識과 地域發展展望에 대해 소극적 평가로 연결되어 지역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섯째, 이러한 空間行動樣式을 조건짓는 것은 生活的 機會에 있어서의 大都市와 農村中心都市의 격차로 요약할 수 있으며 基本需要 충족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요망된다.

농촌중심도시에서 생활의 기회에 대한 격차에 대응하는 다양한 행동양식은 農村中心都市의 立地, 隣近都市와의 關係, 農村中心都市의 成長過程, 經濟構造, 機能의 遂行程度 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농촌중심도시에서의 다양한 社會的 集團의 범주화와 이들의 空間行動樣式的 파악을 통한 농촌중심도시에 대한 理解를 위해서는 위의 사항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比較分析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Residential Type and Spatial Activity of Employed Population in Central City of Rural Area

—A Case Study of Mil-Yang Eup—

## Summary

Tae Hwan, Kim\*

Central cities of rural area in Korea are in the stagnance in the decline. This trends result in various residential type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central city of rural area by residential types and spatial activity of employed population. It is also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to discern the many residential types of employed population in central city of rural area.

Data are derived from questionnaire and field survey from August to October in 1988.

Some findings are as follows:

1. Residential type is divided into 5 types.
  - 1) Job-oriented type of residents in central city of rural area (type A)
  - 2) Type of residing in metropolis (type B)
  - 3) Type of residing in rural hinterland (type C).
  - 4) Type of living separate from one's family (type D).
  - 5) Education-oriented type of residents in central city of rural area (type E).
2. Each residential type has different demographic and socio economic characteristics. Especially, social status of types B and D is higher than that of type A or type E. In the

case of types of residents in central city of rural area, the social status of education-oriented type is higher than that of job oriented type.

3. Residential types have different activity spaces. so each residential types show the different trends of central place-oriented activity.

4. These spatial patterns are closely related to spatial perception. Types B and D don't seem to regard their residence as a permanent one in central city of rural area and underestimate the prospect for regional development.

5. These various residential types are the results of the disparity in the opportunity of life between metropolis and central city of rural area. They are expected to continue as long as the regional disparity is not diminished. So the investment on public sector is required to meet basic need in central city of rural area.

These spatial patterns may vary according to location, relation with adjacent city, the growth process and central functions of central city of rural area.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se factors together, in order to understand central city of rural area by residential type and spatial activity.

---

Journal of Geography, Vol. 15, 1988.12, pp.

\*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